

지역극단 여름 구슬땀 가을 결실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렸던 지역 극단들이 가을건이에 나선다. 극단 아트컴퍼니 원은 지역에 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창작 뮤지컬 '그녀를 기억하며'를 무대에 올리고 푸른연극마을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로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아트컴퍼니원은 3주간 정기 공연을 시도한다.

위안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

아트컴퍼니 원 '그녀를 기억하며'
11~28일 유·스퀘어 동산아트홀

극단 아트컴퍼니 원은 위안부 이야기를 소재로 한 뮤지컬 '그녀를 기억하며'를 무대에 올린다. 11일~28일(화요일 공연 없음)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이번 뮤지컬의 원작은 극단 대표 원광연씨의 희곡작품인 연극 '남자군'이다. 지난 199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연극으로 제작돼 그해 전국대학연극제에서 대상, 이듬해 전국연극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0년 이래 '남자군'을 매년 무대에 올리는 극단은 지난해부터 뮤지컬 작업을 진행해왔다. 뮤지컬 넘버 작곡은 김민정씨가 맡았다. 연세대 음악대학 교회음악과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09년 뮤지컬 '쇼걸' 편곡을 시작으로 뮤지컬 음악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원 아트컴퍼니와는 '서청포 러브'의 데미곡 작곡과 함께 주연배우로 참여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번 작품을 위해 김 씨는 오프닝 곡 '예측하지 못한 삶'을 비롯해, '돌아가는 배', '꿈 많은 시절', '위



안부 수송선', '고향에 날 물어줘', 엔딩 곡 '그녀를 기억하며' 등 모두 10곡을 작곡했다. 연출은 원광연씨가 맡았으며 성화숙, 최신애, 최진영, 김성관, 한종신씨 등이 출연한다. 작품은 1991년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으로 가는 배 안과 일제 감점기를 번갈아 보여주며 전개된다. 배에는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가는 여대생들과 위안부로 끌려갔다가 60년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할머니 최명순, 그리고 그녀의 손녀가 타고 있다. 차별을 참지 못하고 밀항한 재일교포 두 명이 발견되고, 그 모습을 본 최명순은 아픈 과거의 그늘에 빠져든다.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62-360-8437.

세상 모든 엄마와 딸에게 전하는 이야기

푸른연극마을 '엄마는 50에...' 10~20일 연바람씨어터

지난 1991년 국내 초연된 연극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대표 연극배우 박정자의 열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이다. 푸른연극마을이 지금까지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엄마는 50에 바다를 발견했다'를 무대에 올린다. 10일~20일 연바람씨어터 평일 오후 8시, 주말 오후 5시, 22~23일 오후 8시 레드피크 씨어터(옛 KBS광주방송총국). 이번 공연은 푸른연극마을과 협동조합 '대한민국소극장연전'을 함께 꾸려가고 있는 대전 극단 '놀자'의 최정우 대표가 연출을 맡고 전주 극단 '명태'의 양상아씨가 딸 '그라시'역을 맡아 협업을 진행했다. 엄마 역은 푸른연극마을의 대표 배우 이당금씨가 맡았다. 프랑스 배우이자 작가인 드니즈 살레의 희곡인 이 작품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엄마와 딸의 이야기다. 가정밖에 모르는 삶을 살던 엄마는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독립으로 깊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딸에 대한 기대와 사랑으로 이룬 저런 충고를 하지만 딸에겐 그저 잔소리일 뿐이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는 평범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와 작가가 되고 싶은 딸은 서로 충돌하고 딸은 독립한다. 딸이 집을 떠난 후 엄마는 나이 오십에 처음,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데... 티켓 가격 전석 2만원, 문의 062-226-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막힌 가슴 확 뚫리는 신명난 두드림

타악그룹 얼썬 '몽키즈' 공연...11~12일 광산문예회관



타악그룹 얼썬의 공연은 유쾌하고 즐겁다. 벼락처럼 두드러대는 타악기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막힌 가슴이 확 뚫린다. 지난해 초연된 난버벌 타악뮤지컬 '몽키즈'가 다시 관객들을 찾아온다. 지난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 개관기념 공연에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다. 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후 5시 광산문예회관. 원숭이 무리들은 매일 매일 똑같은 따분한 일상과 무더위에 지쳐있다. 마을에 물이

떨어지자 대장 원숭이는 물을 찾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때 원숭이가 마을에 이상한 상자가 하나 떨어져서 서로 상자를 차지하려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다. 청순한 원숭이, 세심한 원숭이, 소심한 원숭이, 장로 원숭이 등 다양한 캐릭터의 원숭이들의 몸짓과 함께 현란한 타악 연주가 흥을 돋운다. 티켓가격 일반 2만원, 학생 1만 3000원, 문의 062-676-384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차 광주폴리 총감독 천의영 교수 선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10일 제145회 이사회를 열고 3차 광주폴리 총감독에 천의영(52) 경기대 건축설계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3차 광주폴리의 기본방향을 시민 참여형과 도심재생으로 정하고 지난해 1월부터 올 7월까지 후보군을 압축해왔다. 건축과 디자인 영역에서 대표 전문가로 손꼽히는 천 교수는 2012년 광주폴리 II 큐레이터로 활동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박사, 하버드대학교 대학원 건축학 및 도시설계학 석사를 마치고 2009 서울디자인올림픽 총감독을 역임했다. 현재 서울시 공공건축가, 경기도 도



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 국토부 통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천 감독은 "3차 광주폴리가 국내 대표 프로젝트이자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단은 내년 하반기 5개 내외의 폴리를 설치해 선별일 예정으로 다음달까지 주제 및 장소, 참여작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

지역문예회관 '문화 활성화 공연 공모사업' 선정

광산·남구 1억2000만원, 광주 9000만원 확보

지역문예회관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 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메르스 사태 후 침체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40개 단체에게 모두 40억원이 배정됐다. 광산문예회관과 남구문예회관 컨소시엄은 '오늘 여기의 아리랑, 아리랑(鄭) 아리랑(樂) 아리랑(謠)'로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주 프로그램은 그란발레단과 푸른연극마을의 '아리랑(鄭)-사랑의 몸짓', 김원중의 탈거리와 얼썬이 함께하는 '아리랑(樂)-신명나는 풍류의 아리랑', 광주여성필하모

닉오케스트라,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함께하는 '아리랑(謠)-애뜻한 선율과 노래'다. 또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팍스팍스', 얼썬의 '락이로', 그란발레단의 '항해'도 공연한다. 광주문예회관은 '2015 의기양양 페스티벌'로 9000만원을 지원받았다. 가족뮤지컬 '보물섬', 어린이 뮤지컬 '우당통탕 49분', 마당극 '술래소리' 가곡 공연 등 모두 7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10월 열리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연계해 광주문예회관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이달 말 문예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열려라 전당 펼쳐라 광주예술' 오늘 예술의거리 '나비아 공동가자' 프로그램



예술의거리활성화사업단은 11일 오후 2시부터 예술의거리 일원에서 '열려라 전당 펼쳐라 광주예술'을 주제로 '나비아 공동가자'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문화전당 개관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마당무대, 예술체험부스 등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마당무대에서는 광주장작퍼포먼스인 '올려라 의 기원춤', 어울림국악예술단의 '가야금명창'이 선보이고 바이올린, 재즈기타, 트럼펫 등 독주악공연과 버블쇼 '버블드레곤', 신기한 서

플코믹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된다. 체험부스는 전통혼례복입기, 무료관상, 북주머니만들기, 고전머리장식하기, 금속공예, 자화상조각하기, 짚풀공예, 한국화그리기, 대금만들기 등 37개의 이색적인 예술체험이 준비됐다. 한편, 사업단은 예술체험에 대한 시민의 관심에 발맞춰 도예물레돌리기 등 10가지 예술 체험을 예약을 통해 상설 운영하고 있다. blog.naver.com/aldur263. 문의 062-223-013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얄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